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길원형 비교분석
-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을 중심으로 -

문 순 이 · 박 길 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 Comparative Analysis of Upper-Torso Bodice Pattern for
Elderly Women of Her Late 60s
- On the Focus of Bunka and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

Soon-Ei Moon and Kil-Soon Park[†]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0. 9. 6. 접수일 : 2010. 12. 1. 수정완료일 : 2010. 12. 7.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gning method with excellent body suitability by analyzing clothing-wearing porosity, comparing and analyzing patterns, and evaluating outer appearances by designing a prototype of study applied with design measurements for categories that have influence on the outer appearance of clothing through diverse research metho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bunka and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which are proportional basic patterns most frequently used in schools for educational use to design bodice pattern for elderly women in their late 60s. As for the process of this study, the first stage selected study subjects, measured bodies. The second stage compared patterns of bunka and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and evaluated outer appearances that deduced important pattern designing categories to design upper-torso bodice pattern of elderly wo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bunka and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overall evaluation of outer appearance was excellent for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and bunka basic pattern received better reviews for the width and depth of front neck. In terms of waist circumference, waist front length, bust point location and bust point-bust point, bunka and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new bunka style basic pattern had 4.5cm larger front armhole depth than bunka basic pattern, so it was evaluated to have more appropriate front armhole length, bust point location, and bust point-bust point. Through observation for primary excellent categories and precedent studies, 7 categories of front neck width, front neck depth, front interscye, back neck width, back neck depth, back interscye, and back armhole depth were deduced to have relations to the extra room around arm holes and waist that affect pattern designing method and porosity and evaluations of outer appearance.

Key words: elderly women(노년 여성), bunka basic pattern(문화식 원형), new bunka basic pattern(신문화식 원형), comparative analysis(비교분석).

[†] 교신저자 E-mail : kspark@cnu.ac.kr

I. 서 론

현대의료산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예상되고 있다¹⁾. 오늘날의 노년층은 경제력 향상과 소비 욕구 및 소비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여가 활동과 사교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특히 실버세대의 여성들은 외적 만족을 추구²⁾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비 집단으로 부상됨에 따라 실버 마케팅이 부각되게 되었다³⁾. 이영주⁴⁾에 의하면 60대 여자는 같은 연령대의 남자에 비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만족도가 낮은 신체를 보완해줄 의복 설계를 위해서는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한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화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 수혜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복 구성을 위한 체형 연구에서는 신체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영희⁵⁾, 이효진⁶⁾은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보고 있으며, 이용재(2003)⁷⁾는 체형 변화가 시작된다고 예상되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 변화가 시작되는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보고, 60대 후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보면 김혜경(1993)⁸⁾은 신장이 줄어들고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증가 후 감소 현상을 보여주며, 김인순과 성화경(2002)⁹⁾은 무릎과 등이 굽어지고 비만이 심해진다고 하였으며, 최인순(2002)¹⁰⁾은 높이항목이 감소하고 어깨가 좁고 처지며 목은 앞으로 숙여지고 상반신이 굽어지며 비만화되어진다고 하였다. 이정임 등(2004)¹¹⁾은 직접 측정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젖꼭지점 높이가 낮아지고 배높이는 높아지며 앞길이가 짧아지고 등 길이가 길어지며 가슴부위 너비와 진동두께가 작아지고, 사지의 둘레가 가늘어지며 팔길이가 짧아진다고 하였다. 의복구성학적 측면에서 체형 특성을 정리해 보면 신장 등 높이 항목이 감소하고 상반신의 굴신형상이 나타나며 복부의 비만으로 허리둘레와 배둘레가 증가하는 반면, 엉덩이와 유방이 처지고 다리는 가늘어진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는 노년 여성의 의복 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치수 변화와 함께 형태 변화도 현저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특성 파악과 체형의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소라(2003)¹²⁾는 중년 여성의 상반신 측면 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4가지 체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의복 패턴 제작과 연관이 깊은 항목으로 목앞길이, 목뒤길이, 앞폭, 뒤폭, 앞길이, 뒤길이, 등길이 등이며, 패턴 제작의 기본이 되는 항목들로 체형별 패턴 개발할 때

1) 통계청자료, 통계자료조사, <http://www.kosis.nso.go.kr/2006>

2) 김유덕, 김미영, “중 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2004), pp. 746-756.

3) 정삼오, 김수아, “실버리뷰 기성업체의 실태조사 연구,” *복식* 56권 4호 (2006), pp. 15-32.

4) 이영주,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9/10호 (2003), pp. 1072-1080.

5) 권영희, “노년기 여성을 위한 Skirt 원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6) 이효진,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7) 이용재, “노년기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65~75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김혜경, “노년 여성의 체형분석에 따른 의복설계,” *생활과학논집* 7권 (1993), pp. 135-146.

9) 김인순, 성화경, “노년기 여성의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2002), pp. 27-38.

10) 최인순, “노년 여성의 상반신 체형특성과 상의원형 설계,” *생활과학논집* 6권 1호 (2002), pp. 161-169.

11) 이정임, 주소령, 남윤자, 문지연, “노년 여성의 표준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2002), pp. 88-99.

12) 김소라, “중년여성의 상반신 측면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권 11호 (2003), pp. 1-9.

이들에 대한 체형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년 여성의 상반신 길원형 설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홍형태(1997)¹³⁾는 문화식 원형이 체형에 잘 맞지 않아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브랜 드별로 패턴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이영주(2001)¹⁴⁾는 신문화식 원형을 적용하여 원형 제도시 진동깊이, 목둘레선 너비와 깊이, 어깨 각도항목, 허리와 암홀 다야트를 추가하여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년 여성의 체형에 대응할 상반신 길원형 구성요인을 선행 연구^{15~21)}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목밑둘레선,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진동깊이 등이 고려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²²⁾의 직접측정치를 참고하여 65~69세 노년

여성의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산출식 비교와 치수 분석, 원형의 외관 평가를 통하여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체형 변화에 대응할 길원형 중요 설계 변인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원형 선정 및 착의 실험

1) 원형 및 피험자 선정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체형 변화에 대응할 길원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원형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영주의 연구²³⁾에서 제시한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제도법은 <그림 1~4>와 같다. 피험자의 측정항목은 최선운과 이정란(2003)²⁴⁾과 최인순(2002)²⁵⁾의 선

<표 1> 기준점 설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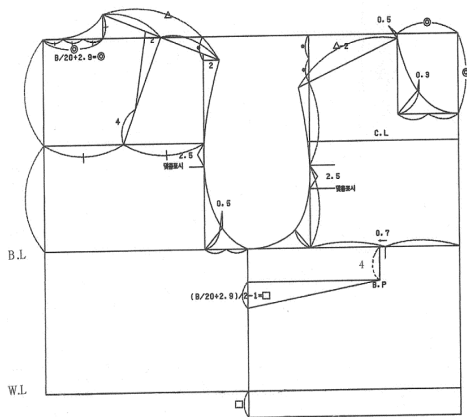
기준점	설정 내용
목앞점	목밑둘레선에서 앞 중심선과 만나는 곳
목옆점	목밑둘레선에서 등 세모근의 위가 가장자리와 만나는 곳
목뒤점	일곱째 목뼈 가시돌기의 가장 뒤로 만져지는 곳
젖꼭지점	측정복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복 컵의 가장 앞쪽으로 돌출한 곳
어깨점	어깨뼈봉우리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점
겨드랑앞벽점	어깨점과 겨드랑앞점 사이 거리의 중간 위치
겨드랑뒤벽점	어깨점과 겨드랑뒤점 사이 거리의 중간 위치

13) 홍형태, “의복기본(부인복기본) 원형에 관한 연구: 산업체를 중심으로,” *대구산업전문대학 논문집* 11권 (1997), pp. 184-210.
 14) 이영주, “신·구 문화식 원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22권 1호 (2001), pp. 423-431.
 15) 강순희, 서미아,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교문사, 2006), pp. 44-47.
 16) 三吉滿智子, *복장조형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2002), pp. 149-154.
 17) 이소영, “60대 노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 분류 및 길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8) 김희숙,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의 유형에 따른 길원형 및 칼라원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2001), pp. 770-781.
 19) 최인순, *op. cit.*
 20) 조현정, “중년여성을 위한 토무소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8호 (2001), pp. 111-121.
 21) 함옥상, 정혜락, “중년여성을 위한 기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4권 1호 (2000), pp. 105-115.
 2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 직접측정에 의한 인체치수통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23) 이영주, *op. cit.*
 24) 최선운, 이정란, “성인여성의 등면 형상 유형화와 길원형 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2003), pp. 758-769.
 25) 최인순, “노년 여성의 상반신 체형특성과 상의원형설계,” *생활과학논집* 6권 1호 (2002), pp. 16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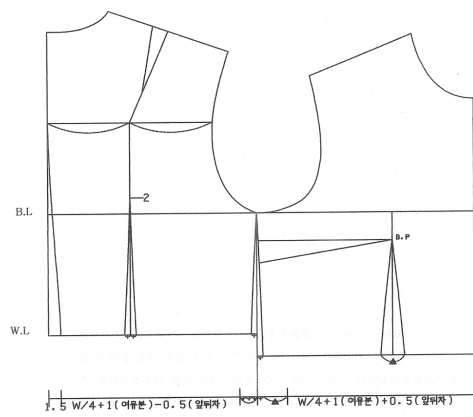
<표 2>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

(단위: cm)

측정 항목	측정 방법	
길이 항목 (7)	어깨사이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줄자로 왼쪽 어깨점에서 오른쪽 어깨점까지의 체표 길이를 잰다.
	겨드랑뒤벽사이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뒤에 서서, 피측정자의 왼쪽 겨드랑뒤벽점에서 오른쪽 겨드랑 뒤벽점까지의 길겨드랑이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등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목뒤점에서 허리뒤점까지 뒤 정중선을 따라 체표 길이를 잰다.
	목옆젖꼭지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줄자로 목옆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목옆허리둘레선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줄자로 목옆점에서부터 젖꼭지점을 지나 허리둘레선까지의 길이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오른쪽 겨드랑앞벽에서 왼쪽 겨드랑앞벽점까지의 체표길이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줄자로 양쪽 젖꼭지점사이의 직선거리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둘레 항목 (3)	젖가슴둘레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줄자로 젖꼭지점을 지나는 둘레를 잰다. 이때 줄자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가슴둘레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줄자로 양쪽 겨드랑앞점을 지나는 둘레를 잰다. 이 때 줄자는 피측정자의 등쪽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허리둘레	측정자는 피측정자의 앞에 서서, 줄자로 허리앞점, 양쪽허리 옆점, 허리뒤점을 지나는 둘레를 잰다. 자연스러운 숨쉬기의 최고점일 때 눈금을 읽는다.
기타 항목 (2)	키	측정자는 한손으로 수직자를 잡아 피측정자의 뒤쪽에 놓고 바닥면에서 머리마루점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피측정자의 머리카락을 누르면서 잰다.
	몸무게(kg)	몸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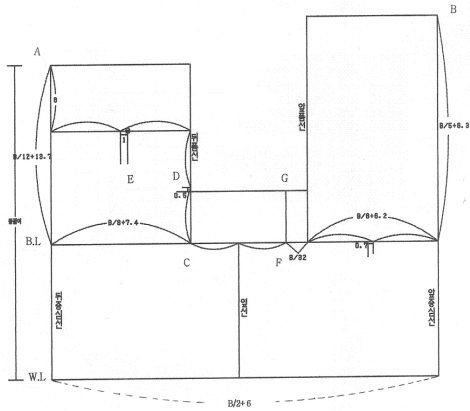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식 원형 기준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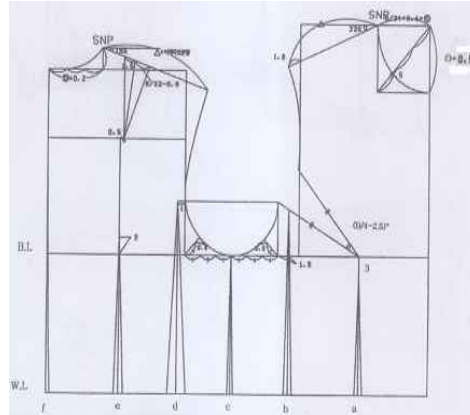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식 원형 완성선 제도

주) 등길이(38.7cm), 젖가슴둘레(93.8cm), 허리둘레(85.3cm)



<그림 3> 신문화식 원형 기준선 제도.

주) 등길이(38.7cm), 깃가슴둘레(93.8cm), 허리둘레(85.3cm)



<그림 4> 신문화식 원형 완성선 제도.

행 연구를 참고하여 길이 7항목, 둘레 3항목, 기타 2항목을 선정하였고, 기준점 설정과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은 <표 1, 2>와 같다. 피험자는 인체 측정 항목의 25~75%에 해당되는 60대 후반 노년 여성 5인을 선정하였다.

2) 실험복 제작 및 패턴 비교

실험복 제작은 평직의 면 100% 머슬린으로 하였으며, 가로 기준선은 빨강색 실로, 세로 기준선은 파란색 실로, 다트는 녹색 실로 1cm 간격으로 홈질하여 표시하였다. 형태 안정성과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목둘레와 진동둘레는 접착심지를 부착하여 안단으로 처리하였다.

2종류의 실험복 패턴 제도 시 뒤 11항목, 앞 13항목으로 총 24항목을 대상으로 산출식과 치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외관 평가와 자료 분석

각 실험복의 외관 평가는 배주형²⁶⁾, 구분정²⁷⁾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머슬린으로 제작한 실험복을 피험자로 선정된 65~69세의 노년 여성 5명 중 Size Korea의 표준인체 치수에 가장 근접한 1명의 피험자에게 임의로 착용시켜 평가하였다. 외

관 평가는 3명의 준거 집단(충남대학교 대학원의 의복구성학 전공자)에 의해 앞 18개, 옆 10개, 뒤 19개 항목으로 전체 47항목이 평가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의미하며, 1점 또는 2점으로 평가한 경우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초 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인체 측정

실험복의 착의 평가와 3차원 형상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정립 시 인체 측정을 통해 65~69세의 노년 여성 5명을 선정하였으며, 피험자의 인체 측정치는 <표 3>과 같다.

2.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산출식 비교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산출식에 의한 각 부위의 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26) 배주형, “노년 여성을 위한 재킷패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7) 구분정, “신축성 유무와 소매산의 높이에 따른 동작기능성에 관한 연구: 여고생 하복 블라우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표 3> 피험자의 인체 측정

(단위: cm)

측정항목	S-1	S-2	S-3	S-4	S-5	M(SD)	Size Korea		
							M(SD)	25~75%	
길이 항목 (7)	어깨사이길이	38.5	38	38	39	37	38.1(0.74)	38.6(2.4)	37~40
	겨드랑뒤벽사이길이	36	36	35	37.5	36	36.1(0.89)	36.4(2.5)	35~38
	등길이	37	38	37	39.5	39	38.1(1.14)	38.7(2.7)	37~41
	목옆젓꼭지길이	29	29	28	29	29	28.8(0.45)	29.0(2.3)	28~31
	목옆허리둘레선길이	41	42	42	41	42	41.6(0.55)	41.3(2.8)	40~43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3	33	33	34	33	33.2(0.45)	32.8(1.9)	32~34
	젓꼭지사이수평길이	18	19	17	18	20	18.4(1.14)	18.7(1.9)	17~20
둘레 항목 (3)	젓가슴둘레	93	95	92	96	98	94.8(2.39)	93.8(6.9)	90~99
	가슴둘레	89	91	88	93	92	90.6(2.07)	89.7(5.34)	86.3~93.6
	허리둘레	80	86	80	81	84	82.2(2.68)	85.3(8.0)	80~91
기타 항목 (2)	키	153.5	151	155	155	155	153.9(1.75)	151.8(4.9)	149~155
	몸무게	56	59	55	57	60	57.4(2.07)	58.7(7.6)	54~63

<표 4>와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몸판너비에서는 신문화식 원형(52.9cm)이 문화식 원형(51.9cm)보다 1cm 크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신문화식 원형이 타이트한 원형이므로 가슴다트량을 추가하여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여진다.

2. 뒤길너비는 문화식 원형(26.0cm)이 신문화식 원

형(25.6cm)보다 0.4cm 크게 나타났으며, 앞길너비에서는 신문화식 원형(27.5cm)이 문화식 원형(26.5cm)보다 1cm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슴다트를 첨가하여 입체적으로 앞가슴의 여유분을 더 준 것으로 보여진다.

3. 겨드랑앞뒤벽사이길이에서는 문화식 원형보다 신문화식 원형이 0.7~0.8cm 정도 작았으며, 이는 진동둘레의 여유분을 줄여준 것으로 보여진다.

4. 뒤목너비와 깊이, 앞목너비에서는 두 원형의

<표 4>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산출식 및 치수 비교

(단위: cm)

항목	산출식		치수 비교	
	문화식 원형	신문화식 원형	문화식 원형	신문화식 원형
등길이	실측치	실측치	38.7	38.7
몸판너비	B/2+5	B/2+6	51.9	52.9
뒤길너비	B/2+5/2-0.5	25.6	26.0	25.6
겨드랑뒤벽사이길이	B/6+4.5	B/8+7.4	20.1	19.1
뒤목너비	B/20+2.9=◎	◎+0.2	7.6	7.5
뒤목깊이	◎/3	◎/3	2.5	2.5
뒤어깨경사각도	일정하지 않음	18°	일정하지 않음	18°
뒤어깨길이	뒤품선에서 2cm 나가기	앞어깨길이 동일	13.7	13.2
뒤어깨다아트량	2	B/32-0.8	2	2
진동둘레선폭	뒤품동일	뒤품동일	20.1	19.1
뒤진동깊이	B/6+7	B/12+13.7	22.6	21.5

<표 4> 계속

항목	산출식		치수 비교	
	문화식 원형	신문화식 원형	문화식 원형	신문화식 원형
몸판너비	B/2+5	B/2+6	51.9	52.9
앞길너비	B/2+5/2	27.5	26.5	27.5
겨드랑앞벽사이길이	B/6+3	B/8+6.2	18.6	17.9
앞목너비	◎-0.2	B/24+3.4=◎	7.4	7.3
앞목깊이	◎+1	◎+0.5	8.6	7.8
앞어깨경사각도	일정하지 않음	22°	일정하지 않음	22°
앞어깨길이	뒤어깨길이	앞품선에서 1.8 나가기	13.7	13.2
가슴다트량	◎/2-1	(B/4-2.5)°	2.8	(B/4-2.5)°=5
앞진동깊이	B/6+7	B/5+8.3	22.6	27.1
앞진동둘레선폭	앞품동일	앞품선+B/32	18.6	20.8
목옆젓꼭지길이	패턴실측치	패턴실측치	26.3	27.2
젓꼭지사이수평길이	패턴실측치	패턴실측치	20.2	19.2
앞중심깊이	패턴실측치	패턴실측치	35.3	36.3
패턴제도시 필요치수	등길이(38.7) 젓가슴둘레(93.8) 허리둘레(85.3)	등길이(38.7) 젓가슴둘레(93.8) 허리둘레(85.3) 어깨경사각도 (앞22°, 뒤18°)	.	.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앞목깊이에서는 문화식 원형(8.6cm)이 신문화식 원형(7.8cm)보다 약 0.8cm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뒤진동깊이는 문화식 원형(22.6cm)이 신문화식 원형(21.5cm)보다 1cm 크게 나타났으나, 앞진동깊이에서는 문화식 원형(22.6cm)이 신문화식 원형(27.1cm) 보다 4.5cm 더 작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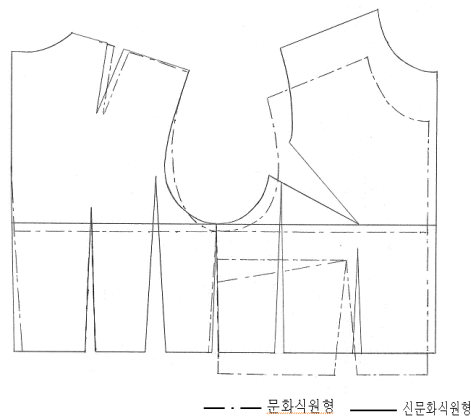
6. 가슴다트량에서는 각도로 나타난 신문화식 원형의 분량을 cm로 측정해 보면 약 5cm 정도로 문화식 원형(2.8cm)보다 컸으며, 이는 앞진동깊이가 문화식 원형보다 신문화식 원형이 더 크게 나타난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 목옆젓꼭지길이에서는 문화식 원형(26.3cm)이 신문화식 원형(27.2cm) 보다 0.9cm 더 길게 나타났지만, 인체 측정치 29cm 보다는 각각 2.7cm, 1.8cm 작게 나타나서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젓꼭지사이수평길이에서는 문화식 원형(20.2cm)이, 신문화식 원형(19.2cm) 보다 1cm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체측치 18.7cm보다 각각 1.5cm, 0.5cm 크게 나타나서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앞중심깊이에서는 신문화식 원형(36.3cm)이, 문화식 원형(35.3cm)보다 1cm 길게 나타났다. 이는 문



<그림 5>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중합도.

화식 원형에서는 앞치짐분까지 포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짧게 나타나 앞 중심길이가 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3. 외관 평가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실험복에 대한 외관 평가는 3명의 준거 집단(충남대학교 대학원의 의복구성학 전공자)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험자로 선정된 65~69세의 노년 여성 5명 중 Size Korea의 표준인체 치수에 가장 근접한 피험자(S-2) 1명에게 임의로 착용시켜 평가하였다. 외관 평가의 분석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7>과 같다.

1차 외관 평가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길은 전체적으로 신문화식 원형이 문화식 원형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앞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앞중심길이는 적당한가’, ‘젓꼭지점의 위치와 간격은 적당한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이것은 이영주²⁸⁾의 연구에서는 가슴둘레가 67~88cm 사이의 20대 평균체형 여성 8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유두길이가 문화식 원형에 비해 신문화식 원형이 3~4cm 정도 길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0.9cm가 신문화식 원형이 크게 설정되어 이영주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화식 원형은 앞길이 부족에 의한 들림을 앞치짐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적합성이 떨어졌고 신문화식 원형은 앞진동부분을 문화식 원형보다 길게 설정함에 따라 ‘앞허리둘레선의 위치와 앞중심길이’, ‘젓꼭지점의 위치와 간격은 적당한가’에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p<0.01$). 앞목너비 항목에서는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앞목깊

<표 5> 앞길의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외관 평가 결과

외관 평가 항목	문화M(SD)	신문화M(SD)	t-test	유의확률
앞중심선은 수직인가?	4.04(0.54)	4.16(0.55)	-0.777	0.441
젓가슴둘레의 위치는 적당한가?	3.20(1.19)	3.72(0.89)	-1.749	0.087
앞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20(1.15)	4.00(0.71)	-2.954	0.005**
앞중심길이는 적당한가?	3.20(1.15)	4.00(0.50)	-3.179	0.003**
앞목너비는 적당한가?	3.16(1.03)	3.48(1.05)	-1.091	0.281
앞목깊이는 적당한가?	3.04(1.02)	2.56(1.04)	1.644	0.107
목밑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08(0.86)	2.88(0.78)	0.860	0.394
어깨끝점의 위치는 적당한가?	3.36(0.95)	3.60(0.71)	-1.012	0.317
어깨부위의 들뜸이나 당김이 생기는가?	3.40(0.87)	3.28(1.10)	0.429	0.670
겨드랑앞벽사이길이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16(0.91)	3.36(0.99)	0.746	0.459
진동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한가?	3.20(0.76)	3.56(0.71)	-1.724	0.091
젓꼭지점의 위치와 간격은 적당한가?	3.12(0.88)	3.84(0.80)	-3.025	0.004**
가슴다아트 양은 적당한가?	3.60(0.76)	-	-	-
진동다아트 양은 적당한가?	-	3.40(1.00)	-	-
허리다아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3.00(0.82)	3.88(0.53)	-4.530	0.000
허리다아트의 양은 적당한가?	3.36(0.86)	3.60(0.96)	-0.932	0.356
허리다아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3.28(0.89)	3.72(0.68)	-1.965	0.055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은 좋은가?	3.28(0.68)	3.72(0.74)	-2.196	0.033*
합계	3.29(0.92)	3.56(0.81)		

* $p<0.05$, ** $p<0.01$.

28) 이영주, “신·구 문화식 원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22권 1호 (2001), pp 423-431.

이에서는 신문화식 원형이 작게 나타나 외관 평가 시 문화식 원형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옆길 항목에서는 신문화식 원형이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깨선이 바르게 놓여 있는가’, ‘옆솔기선의 앞, 뒤길 분리선의 위치가 적당한가’, ‘앞·뒤 진동부위와 겨드랑부위의 군주름이 생기는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각각 나타냈다($p<0.05$), ($p<0.01$).

진동깊이는 문화식 원형이 가슴둘레가 3cm 커질 때마다 0.5cm 씩 증가를 보인 반면, 신문화식 원형은 0.2~0.3cm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동둘레폭과 옆선폭이 문화식 원형은 가슴둘레가 커짐에 따라 각각 0.5cm 증가를 보였으나, 신문화식 원형은 진동둘레폭이 옆선폭에 비해 B/32(2.9cm)가 작게 되어 가슴둘레가 커짐에 따라 그 차이를 줄어 들게 하여 진동부위의 맞음새와 군주름 발생이 적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외관 평가에서도 문화식 원형보다 신문화식 원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p<0.05$).

뒤길 항목에서도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화식 원형이 문화식 원형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뒤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p<0.01$), ‘뒤목너비’($p<0.05$), ‘뒤목깊이’($p<0.05$),

목밑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p<0.01$), ‘어깨끝점 위치는 적당한가’($p<0.05$), ‘어깨다아트 길이는 적당한가’($p<0.01$), ‘어깨다아트 위치는 적당한가’($p<0.05$), ‘어깨다아트 양은 적당한가’($p<0.01$), ‘허리다아트 길이는 적당한가’($p<0.05$), ‘허리다아트 양은 적당한가’($p<0.05$),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특히 문화식 원형에서는 ‘진동둘레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한가’에서는 2점대로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진동둘레 제 위치부분에서 높게 보인다고 답하였다.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못하였지만 ‘등길이는 적당한가’에서도 문화식 원형이 2점대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등길이가 짧다고 하였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신문화식 원형이 문화식 원형보다 우수하였으며, 특히 옆길 항목이 우수하였다. 이것은 앞뒤겨드랑사이길이와 진동깊이가 신체적합성과 진동둘레의 맞음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 등 사회 활동이 많은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년층을 위한 전문적인 브랜드는 한정적이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충족시키지 못하

〈표 6〉 옆길의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외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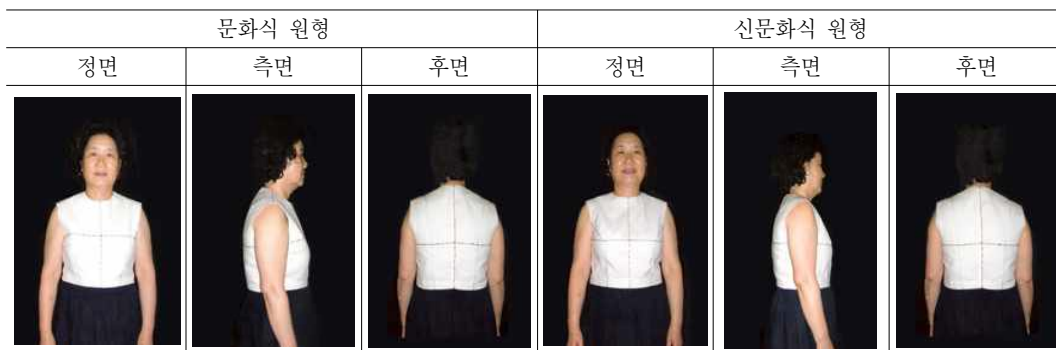
외관 평가 항목	문화M(SD)	신문화M(SD)	t-test	유의확률
어깨선이 바르게 놓여있는가?	3.48(0.71)	3.96(0.89)	-2.105	0.041*
옆솔기선의 앞, 뒤길 분리선의 위치가 적당한가?	3.64(0.57)	4.00(0.65)	-2.092	0.042*
겨드랑밑점의 위치는 적당한가?	3.36(0.81)	4.00(0.58)	-3.216	0.002**
겨드랑이 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24(0.83)	3.64(0.99)	-1.543	0.129
진동깊이는 적당한가?	3.16(0.90)	3.72(0.89)	-2.214	0.032*
진동둘레선이 자연스러운가?	3.44(0.92)	3.92(0.57)	-2.222	0.031*
앞진동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3.24(1.01)	3.88(0.93)	-2.332	0.024*
뒤진동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3.32(0.95)	4.12(0.60)	-3.573	0.001**
겨드랑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3.36(0.99)	4.08(0.60)	-2.956	0.005**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은 좋은가?	3.28(0.89)	4.00(0.71)	-3.166	0.003**
합계	3.35(0.86)	3.93(0.74)		

* $p<0.05$, ** $p<0.01$.

<표 7> 뒤걸의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외관 평가 결과

외관 평가 항목	문화M(SD)	신문화M(SD)	t-test	유의 확률
뒤중심선은 수직인가?	3.88(0.53)	4.08(0.57)	-1.287	0.204
젖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28(0.61)	3.64(0.81)	-1.771	0.083
뒤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08(0.76)	3.72(0.89)	-2.734	0.009**
등길이는 적당한가?	2.92(0.70)	3.36(1.04)	-1.758	0.085
뒤목너비는 적당한가?	3.08(0.86)	3.64(0.70)	-2.521	0.015*
뒤목깊이는 적당한가?	3.08(0.81)	3.64(0.81)	-2.440	0.018*
목밑둘레선의 위치는 적당한가?	3.24(0.66)	3.80(0.65)	-3.025	0.004**
어깨끝점위치는 적당한가?	3.20(0.91)	3.72(0.79)	-2.152	0.036*
등부위에 수평주름이 생기는가?	3.76(1.83)	4.08(0.70)	-1.471	0.148
옆선에서 등쪽으로 향하는 사선주름이 생기는가?	3.60(1.00)	4.08(0.81)	-1.863	0.069
겨드랑뒤벽사이길이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16(0.90)	3.68(1.14)	-1.787	0.080
진동둘레는 제 위치이며 여유는 적당한가?	2.92(1.00)	3.76(0.88)	-3.160	0.003*
어깨다아트 위치는 적당한가?	3.68(0.48)	4.04(0.61)	-2.324	0.023*
어깨다아트 양은 적당한가?	3.60(0.50)	4.08(0.57)	-3.160	0.003**
어깨다아트 길이는 적당한가?	3.64(0.49)	4.08(0.57)	-2.923	0.005**
허리다아트 위치는 적당한가?	3.44(0.82)	3.88(0.78)	-1.942	0.058
허리다아트 양은 적당한가?	3.12(0.88)	3.64(0.91)	-2.055	0.045*
허리다아트 길이는 적당한가?	3.04(0.89)	3.68(0.90)	-2.530	0.015*
전체적인 실루엣과 외관은 좋은가?	3.24(0.52)	3.76(0.78)	-2.772	0.018*
합계	3.31(0.80)	3.81(0.78)		

* $p < 0.05$, ** $p < 0.01$.



<그림 6>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 착의 사진.

고 있다. 노년 여성들의 신체 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인 목 부위와 어깨 부위, 등 굽음으로 길 원형 설계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 60대 후반 노년 여성을 대상

으로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을 비교분석하여 노년 여성에게 적합한 원형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의복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설계 항목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외관 평가는 신문화식 원형이 우수하였으며, 앞목너비와 앞목깊이에서는 문화식 원형이 신문화식 원형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60대 노년 여성의 신장이 줄어들고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의 증가 및 어깨가 좁고 목과 상반신의 굴신으로 목이 앞으로 기울고, 젖가슴도 처지는 동시에 비만화 되는 체형 특성상 문화식 원형에서는 앞목너비와 깊이가 크게 설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체적으로 여유분과 어깨와 진동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신문화식 원형에서는 진동둘레 폭과 언더암 다트로 진동둘레의 안정화와 앞중심 길이와 젖꼭지점 위치와 관련된 항목이 문화식 원형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가슴둘레가 큰 경우의 진동과 앞치짐분량과 허리선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Waist Fit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화식 원형에서는 진동둘레폭=옆선-B/32로 진동둘레의 안정화와 허리부위의 여유분으로 다이어트 설정 시, 여러 개의 다이어트 체형 굴곡에 맞추어 설정하여 옆선에서 다이어트를 설정한 문화식 원형보다는 맞음새와 외관 형태가 우수하였다.

신문화식 원형이 문화식 원형보다 앞진동깊이에서 4.5cm가 더 크게 설정되어 있어 앞중심길이와 젖꼭지점 위치, 젖꼭지점 간격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이영주의 20대 연구대상자의 결과에 일치하는 것으로 앞진동깊이는 79cm 이하는 문화식 원형이 크게 설정되었으며, 82cm부터는 신문화식 원형의 진동깊이가 크게 설정되었다. 뒤진동깊이를 살펴보면 이영주의 연구에서는 문화식 원형은 가슴둘레가 3cm 커짐에 따라 0.5cm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신문화식은 가슴둘레의 증가에 따라 0.2~0.3cm의 증가를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신문화식 원형이 0.9cm 작게 설정되었다. 목옆젖꼭지길이를 살펴보면 이영주의 연구에서는 20대 평균 체형의 여성 8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유두깊이가 신문화식 원형이 3~4cm가 문화식 원형보다 크게 설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슴둘레가 93.8cm인 65~69세의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패턴을 실측한 결과, 문화식 원형에서는 26.3cm, 신문화식 원형에서는 27.2cm, 인체계측치 29cm보다는 작지만

신문화원형이 0.9cm 크게 설정되어 이영주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화식 원형이 앞길이의 부족에 의한 들림을 앞치짐으로 보완하려고 한 반면에, 신문화식 원형은 앞 진동깊이부분을 문화식보다 길게 설정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젖꼭지점 위치가 문화식 원형에 비해 길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의 비교 분석과 선행 연구를 통하여 특히 외관 평가와 패턴 설계 및 공극량에 영향을 주는 허리부위와 겨드랑이부분의 여유분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앞목너비, 앞목깊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뒤목너비, 뒤목깊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뒤진동깊이의 7개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60대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상 어깨가 좁고 목과 상반신의 굴신으로 앞목너비와 앞목깊이, 뒤목너비, 뒤목깊이가 20대 성인여성보다 앞목너비는 좁고 대신 앞목깊이는 깊게, 뒤목너비와 뒤목깊이는 작게 설정되어야 할 항목이며, 겨드랑앞벽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또한 등 굽음으로 작게 설정하는 대신 진동둘레폭=옆선-B/32로 설정되어 전체적으로 비만해지는 체형에 적합하였다.

이상으로 문화식 원형과 신문화식 원형간의 치수분석과 외관 평가를 통해 60대 후반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을 반영한 길원형의 중요 설계항목을 추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노년 여성의 다양한 체형 및 특이 체형을 반영한 연구 및 길원형과 함께 소매원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외관이 우수하며 적합성이 높은 원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 여성을 위한 기성복 생산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 서미아 (2006). *의복의 입체구성*. 서울: 교문사.
- 구본정 (2007). “신축성 유무와 소매산의 높이에 따른 동작기능성에 관한 연구: 여고생 하복 블라우스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희 (1986). “노년기 여성을 위한 Skirt 원형연

-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2003). “중년 여성의 상반신 측면 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권 11호.
- 김유덕, 김미영 (2004). “중 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8권 6호.
- 김인순, 성화경 (2002). “노년기 여성의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 김혜경 (1993). “노년 여성의 체형분석에 따른 의복설계.” *생활과학논집* 7권.
- 김희숙 (2001). “성인여성의 頸部 및 肩部の 유형에 따른 길원형 및 칼라원형의 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권 5호.
- 배주형 (2006). “노년 여성을 위한 재킷패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 직접측정에 의한 인체치수통계.
- 三吉滿智子 (2002). *복장조형학 이론편*. 서울: 교학연구사.
- 이소영 (2003). “60대 노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 분류 및 길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1). “신·구 문화식 원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22권 1호.
- 이영주 (2003).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9/10호.
- 이용재 (2003). “노년기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65~75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임, 주소령, 남윤자, 문지연 (2002). “노년 여성의 표준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호.
- 이종남 (1982). “노년기 여성의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 주성분 분석에 의한 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1986).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삼오, 김수아 (2006). “실버의류 기성업체의 실태조사 연구.” *복식* 56권 4호.
- 조현정 (2001). “중년 여성을 위한 토루소 원형 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8호.
- 최선윤, 이정관 (2003). “성인여성의 등면 형상 유형화와 길원형 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7권 7호.
- 최인순 (2002). “노년 여성의 상반신 체형 특성과 상의원형 설계.” *생활과학논집* 6권 1호.
- 통계청자료 (2006). 통계자료조사. <http://www.kosis.nso.go.kr/>
- 함옥상, 정혜락 (2000). “중년 여성을 위한 기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4권 1호.